

안방에 누워 진료 받고 집에서 약 수령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언택트’(비대면)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끌어올렸다. 직장 근무부터 학교 교육, 물건 구매, 금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자리잡았다. 비대면과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경기연구원의 언택트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성분야에 대한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4.7%가 향후 집중육성해야 하는 분야로 원격의료를 꼽았다. 이런 사회적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급성장하는 분야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올라케어와 같은 비대면 원격 진료 플랫폼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 10배 성장 전망
블루엔트 ‘올라케어’ 이용자 급증
맞춤형 의사 매칭·자택으로 약 배송
지난달 진료건수 한달새 400% 경증

●2027년 세계 원격의료시장 472조 예상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재택치료 등 의료서비스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특례사항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는 2년도 안되는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만4727건이던 원격진료 누적건수가 지난해 10월에는 312만6630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원격진료 수요의 급증은 우리나라만의 상황 아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2019년 416억 달러(49조5000여억 원)에서 2027년에는 3967억 달러(472조7000여억 원)로 약 1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원격의료에 대한 시장 요구에 부응해 국내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및 약배송 플랫폼 중 하나인 올라케어의 경우 시장에 론칭한 지 5개월만인 12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9만 명을 넘어섰다.
올라케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의사를 추천해 주고 처방약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올라코디’가 환자의 진료이력, 진료과목, 원하는 진료시간 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의사를 실시간으로 추천해 5분 안에 매칭을 완료한다. 사용경험이 좋았던 병원을 직접 선택하거나 전담병원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가파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앱(왼쪽)과 의약품 전문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올라달리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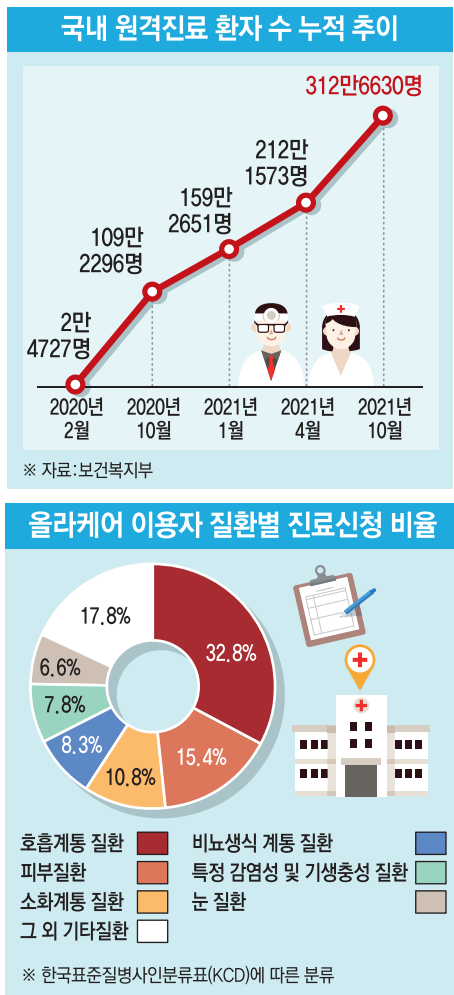


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가족 대리신청, 화상진료 가능 등도 갖추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최초로 전문 의약품 패키지와 함께 환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배송 시스템 ‘올라달리버리’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올라케어의 12월 사용자 진료건수는 전월 대비 400% 이상 증가했고 앱 이용 및 누적진료 건수는 25만여 건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진 증가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가격리로 외출이 어렵거나 병원에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오배송 방지 ‘라스트 마일’ 운영
올라케어의 이용자 빅데이터를 보면 2030 여성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젊은 여성 사용자들 중심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시장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다. 또한 이용자의 질환별 진료신청 현황을 보면 호흡계통 질환(32.8%), 피부질환(16.4%), 소화계통 질환(10.8%), 눈 질환(6.6%) 등 일상 경증

질환의 진료 비중이 높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데 관건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이다. 이를 위해 올라케어의 경우 ‘의약품 전문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 서비스 ‘올라달리버리’를 신청하면 플랫폼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배송전담 직원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아 환자의 본인 확인 후 직접 전달한다. 특히 민감한 약 배송 과정에서 오배송 리스크 해결과 개인민감정보인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대면 원격 진료는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보기술(IT)과 축적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일상 생활습관까지 개선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구독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명지병원 이 재택치료 전방위 진료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명지병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의 음압병실. 사진제공 | 명지병원

코로나 비대면·외래 진료 동시에

명지병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문 열어

명지병원은 최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를 오픈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의 비대면, 방문, 외래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재택치료 전방위 진료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비대면으로는 증상 파악이 어렵거나 지속된 증상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이송해서 의사가 대면 외래진료를 한다.
센터는 일반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분리된 병원 공간에 500㎡ 규모로 마련했다. 이동형 음압병동 모듈(MCM) 2개 동과 음압 외래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등이 있다. 음압병동 모듈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3세대 모듈로 음압과 환기상황의 중앙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인터락이 적용된 전실과 병실 안 개별 화상실을 갖추고 있다. 음압병동 1개는 산소치료까지 가능한 2인용 단기입원실로 사용하고, 1개동은 처치와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주 주사제 투여 등을 위해 이용한다.

김재범 기자

광동제약 ‘우황청심원’ 연매출 500억 돌파



광동제약의 스테디셀러 ‘광동 우황청심원’이 2021년 연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다. ‘광동 우황청심원’은 1973년 제조 허가를 취득해 이듬해 ‘거북표 원방 우황청심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나왔다. 이후 정신불안, 두근거림, 고혈압, 뇌졸중 등의 효능효과를 가진 일반의약품으로 광동제약을 대표하는 제품이 됐다. 환제로 처음 나온 광동 우황청심원은 현재 제품라인을 확대해 제형과 원료, 약제 함량에 따라 총 8종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랜드 사이트(www.kdwoowhang.com)도 개설했다. 한편 우황청심원과 마찬가지로 동의보감을 기초로 만든 ‘광동 공진단’도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13일(목)			
서울	30/0	인천	30/0	춘천	20/0		
	-9 -4		-6 -4		-12 -3		
강릉	0/0	대전	60/20	전주	60/30		
	-5 1		-8 0		-6 0		
광주	60/30	대구	20/0	부산	20/0		
	-4 1		-6 1		-2 4		
창원	20/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5 3		5 6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4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양형호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건부장 고종철	인재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척추내시경으로 목 디스크·경추질환 치료”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목디스크는 경추 뼈와 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하거나 파열돼 경추 신경이 압박을 받아 목과 어깨 등에 통증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주로 뒷목 및 어깨 상부의 통증,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 현기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목디스크는 많이 알려진 디스크질환인 허리디스크보다 위험하다. 허리디스크는

탈출된 디스크가 말초신경만 자극하지만 목디스크는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까지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뇌와 척수로 이뤄진 중추신경은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목디스크 증세가 악화되어 중추신경까지 손상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목디스크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신경차단술 같은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나, 이미 증세가 악화되어 손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

료인 척추내시경을 적용한다.

목디스크의 기존 치료법은 목 앞에서 고배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디스크나 인공뼈를 삽입하는 경추간 유합술이었다.

이 수술법은 기도, 식도, 성대와 관련된 신경들을 피해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 손상의 위험이 높고 수술 후 인공보형물의 적응기간 동안 통증을 시달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척추내시경술은 1cm 미만의 작은 구멍으로 직경 7mm의 초고해상도 특수 내시경을 삽입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이다. 전신마취를 하고 30분 내외로

수술이 이뤄진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회복도 빠르다. 의료진이 병변을 보면서 수술해 정확도가 높고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고위험군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다.

척추내시경술은 수술 난이도가 어렵고 높은 수준의 술기가 필요해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본병원 김형식 원장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3일 (목) 음력: 12월 1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물이 차지 않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기가 올 때 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협력해 주는 사람을 기대할 수 없고, 홀로 자기 길을 가야 할 각오가 필요하다. 두 곳의 사업장이 있다면 한 곳으로 합하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조화가 되지 않는 날이다. 벽한 일로 고역을 치른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격류를 건너고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에는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하여 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제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사람은 천천히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는 준비기간이 되고 여성은 애정문제에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생활에 변화를 피하게 되며 매사 왕성한 활동을 하거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루게 되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금전 지출은 많아지고 금전유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녀 모두 연애나 결혼의 좋은 기회를 맞게 되나 다름이 일어나고 금전상 불안감이 생기기 된다. 유흥 또는 먹고 마시는 데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고 저축에 힘쓰면 좋은 성과가 있겠다.	매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로 굳은 열음이 풀리고 만물이 일제히 싹을 틔운다.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고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되고 새로운 출발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빨리 호기를 붙잡아야 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지금까지 감추려 했던 일들이 세상에 노출되므로 그로 인한 다툼으로 신경을 쓰게 되며 애정 문제에도 트러블이 생겨 걱정거리가 표면화되기 쉬워진다.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해 왔던 사람은 승진과 지위향상의 영예를 얻게 된다.	지나친 야망과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물론 뻔어가는 기운이지만 그만큼 책임은 무겁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다. 사물은 성화면 쇠하는 법. 지나친 언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복사를 해야 하는 운기의 날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그 행위로써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남에게 덕을 입히는 것으로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실직자는 직장을 얻는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고 감응하는 운기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한 날이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애정 운이 최고인 날이다.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더욱 빛나는 것이다.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지금은 재능을 감추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